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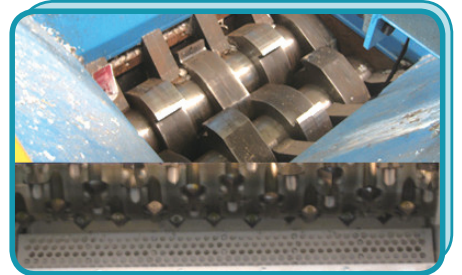
베테랑도 피할 수 없는 파쇄기·분쇄기 끼임사고

※ 파쇄기·분쇄기: 암석·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들을 작은 덩어리나 분체로 부수는 기계장치



사고 전에는 언제나 이상 없다.

경기 시흥 소재 재생 플라스틱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48세 박씨는 이 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경력 20년차 베테랑 작업자다. 그 날도 박씨는 출근하여 정리정돈을 하고 9시부터 폐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시작하였다. 파쇄 작업은 박씨 고유 업무이고 동료들은 각자의 업무를 위해 박씨의 곁을 떠난다. 파쇄 작업은 늘 박씨 혼자서 실시한다. 오늘도 모든 일이 원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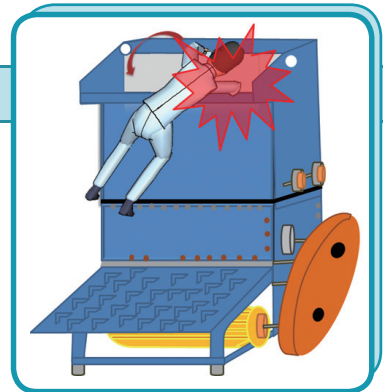
늘 하던 대로 작업을 한다. 나는 베테랑이다.

사실 파쇄기는 위험하다. 박씨도 알고 있었다. 투입구는 크고 파쇄기 칼날은 가깝다. 이력도 알 수 없는 오래된 기계이고 비상정지장치도 없다. 하지만 박씨는 그 기계를 잘 알고 있었다. 동료가 없을 때도 파쇄기는 옆에 있었고 동료보다 더 오래 일했다. 늘 하던 대로 전원을 넣고 투입구에 폐플라스틱을 손으로 집어넣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옆에 있던 폐플라스틱은 줄어든다. 박씨는 흡족하다.



10시 10분... 파쇄기 작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공장장이 공장에 들어선다. 이상하다. 파쇄기 작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벌써 파쇄작업이 끝난 걸까? 빠르다. 역시 박씨야!! 현장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다. 박씨의 오른팔이 파쇄기날에 끼여 있고 몸통은 파쇄기에 닿아 있다. 공장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박씨에게 달려간다. 119에 신고하고 동료들과 함께 박씨를 꺼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파쇄기 칼날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

박씨가 당한 사고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2019년에도 두 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사장, 공장장, 작업자 모두 파쇄·분쇄 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쇄·분쇄 작업은 폐자재의 형상과 투입구의 병목 현상으로 작업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자재를 깊이 넣으려 하고 손으로 폐자재를 밀어 넣게 되는 것이다.



『끼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 절대로』

파쇄·분쇄 작업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 손이 파쇄기 칼날과 닿지 않도록 하면 된다. 수공구를 사용하여 접근하지 않고 밀어 넣거나 투입구에 가드를 설치하여 손이 칼날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물론 다소 불편하고 작업시간도 늘어나겠지만 파쇄기·분쇄기가 폐자재가 아닌 우리의 삶을 부수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명심해야 한다. 『끼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 절대로』**